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 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 발행일 2014년 9월 15일 | 총권 33호 |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6-13 2층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이젠, '함께 읽기'다

오늘날 교실은 붕괴되고 대학은 사실상 몰락했다.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온갖 스펙을 쌓아 500대 안정된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고등학생 100명 중 3명 미만이다. 그들도 20년 정도 일한 다음 조용히 '안정된 직장'에서 내려와야 한다.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로봇' 같은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 직종의 80%가 소멸하거나 현재와는 다른 형태로 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커다란 인생의 회오리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3명을 제외한 97명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왔다. 그들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나는 책읽기라고 본다.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은 <기획회의> 375호 좌담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시대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책읽기'입니다. 책으로 표현되는, 앞선 시대의 지혜, 지식, 정보, 스스로 문제를 설정해서 탐구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해 정의하는 것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책읽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손노동'으로 표현되는 게 있을 듯합니다.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기계가 감당하는 게 늘어날 텐데, 기계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손으로 글쓰기, 붓글씨, 조형물 만들기, 목공, 텃밭 가꾸기, 약기 다루기. 이걸 기계가 못하거든요. 기계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라며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통 인문학자 김용규는 『생각의 시대』(살림)에서 "2030년이 되면 지식이 3일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했다. 이렇게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유용한 지식, 즉 핵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버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역량'이다. 정보를 많이 암기해야 하는 '저장의 시대'에서 핵심만 남겨놓고 잊어버릴 줄 아는 '망각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으며 그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나는 이미 세상의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 월간 <학교도서관저널>을 2010년 3월에 창간했다. 또 백화현의 『도란도란 책모임』, 안광복의 『성장을 위한 책읽기』, 이덕주 외 여러 교사들이 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전2권), 박상률의 『어른도 읽는 청소년 책』 등 역시 책읽기와 관련된 단행본도 펴냈다. 『그림책 365』 『체험활동 365』 『만화책 365』 『진로 직업 365』 『성과 사랑 365』 등 '365 시리즈' 다섯 권과 해마다 그해의 추천도서 목록집도 펴냈다. 나는 2009년에 이미 '학교도서관저널'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잡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내가 시대정신을 이야기한지 5년이 됐다. 그 사이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나라의 교육은 망가졌다. 이미 은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1차 베이비붐 세대(50대)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2차 베이비붐 세대(40대)는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았다는 '이케아 세대'(30대)가 겪는 좌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 아래 세대인 88만원 세대(20대)는 세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청소년 시절을 힘들게 보내며 최고의 스펙을 쌓았던 윗세대 선배들이 '석·박사 백수' 혹은 '대졸 백수'가 되는 것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시작도 해보지 않은 채 절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실이 붕괴된 '교육 불가능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온 세대가 위기감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함께 읽기'다.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책을 잘못 읽으면 '독'이 되기도 한다. 책에는 정답이 없다. 그저 내 생각과는 다른 생각만 다양하게 존재할 뿐이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차이'가 곧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스스로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상상력이 바로 난세를 살아낼 '역량'이다. 나는 이런 주장을 담은 『이젠, 함께 읽기』(신기수 외, 북바이북)를 기획해 세상에 내놓았다.

한기호 | 학교도서관저널 발행인 / 학도넷 고문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책모임 여사서동락이 권하는 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유정 / 손영 / 안용덕 / 이민경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이리남성여자중학교 도서관으로 놀러오세요~

-이숙희(이리남성여자중학교 사서)

내가 대학도서관에서 정년을 하고 이리남성여중 도서관에서 근무한 것은 지난 3월부터입니다. 제의를 받고 이 학교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학교는 아직 방학이었고, 지난 1년은 사서 없이 운영되었던 터라 도서관을 둘러 본 후 나온 내 첫소리는 '한 달은 몸으로 버텨야겠군!'이었습니다.

학교의 3월은 정말이지 호떡집에 불이 난 꼴이더군요. 또 하나, 중학교의 3월은 정말이지 찢어질듯 한 고함소리 소리소리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사서는 사서대로 이제 이 에너지 넘쳐 폭발할 것 같은 아이들과 뭔가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꿈쩍도 안하는 서가를 옮겨 배치를 다시하고 책을 모두 다시 꽂고, 먼지를 걷어내느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겨우 2주 만에 대출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와우! 카페처럼 변했다'며 좋아라 했고 나는 그것으로 보상을 받은 셈이지요.

도서관의 3월은 먼저 진급처리부터 시작합니다. DLS와 NEIS가 호환되지 않는 관계로 NEIS처리가 끝나면 DLS 센터에 진급처리를 의뢰해야 하고 초임자에게 이 일은 거의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와 더불어 신입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려면 이용자 교육 자료와 실습지를 만들고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얻기 위해 1학년 선생님들과 접촉? 해야 합니다.

우리학교는 적극적인 선생님들의 협조로 1학년 6학년 200여 명이 2시간 동안 이용자 교육을 받고 검색과 책 찾아보기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용자 교육자료에 관한 가지 아쉬운 점은 DLS센터에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학교 실정과 많이 달라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더라도 적극적인 이용자들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한 번 보기를 권합니다. 이용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 용어나 대출권/일 수, 이용시간 안내 등과 함께 청구기호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실습지의 대부분은 청구기호를 완성하게 하거나 그에 따른 배열순서를 알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제공 시간별로 주제에 맞는 소장도서명을 주고 검색해서 청구기호를 적도록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서가에서 책을 찾아보는 일은 도서관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도서관을 만만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참새방앗간 드나들 듯 오고 가며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었으니 이 시간을 생략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도서관부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독서동아리활동도 기획해야 합니다.

우리학교 독서동아리부원들은 학년별로 조를 짜서 읽고 싶은 책을 1권씩 선정하여 돌아가며 읽도록 해 봅니다만, 수행평가에 반영도 안 되는 사서로서는 힘에 부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부를 모집할 때는 책을 좋아하고 성실한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도서관구입을 해야 하고, 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신청도서양식을 뿌리고 도서관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규정을 정비하며 도서관 현황보고 자료들도 챙겨야 합니다.

이제야 살았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자마자 세계 책의 날이 맞아줍니다. 어떡하나? 예산도 없고, 학생들은 시험기간이라 바쁘기만 합니다. 음악부의 협조를 받아 작은음악회를 꾸려봅니다. 아이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어 시낭송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로 하고 우리학교 시인 선생님을 초빙하여 자작시낭송도 부탁합니다. 초청장을 만들어 교내 메일도 보내고 사탕도 준비해서 책의 날을 알리고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보는 것이지요.

1학기 동안 우리 독서동아리 활동을 보면 익산시립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릴레이 북클럽 결성하기, 익산돌레길 독서마라톤 참가하기, 원광대학교도서관 견학하기 등이 있습니다.

5월에는 우리학교 교사독서동아리인 '늘별독서회'를 꾸렸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트렌드코리아 2014', 다음은 혜세의 '데미안'이었는데 이때는 재능기부를 받아 혜세전문가 이신구 교수(전북대)의 특강도 있었습니다. 7월 도서는 다니엘 튜터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이 책은 'KOREA : The Impossible Country'의 한국어판으로 2012년 영어판이 먼저 출간되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책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귀한 책이었습니다. 방학동안에는 조정래의 정글만리로 여행을 다녀왔고, 9월은 데카메론, 10월은 성석제의 투명인간, 11월은 호밀밭의 파수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서동아리를 꾸려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나누는 것 말고도 책을 집중해서 읽게 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바라보자면 모든 모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맛있는 먹을거리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교육복지실과 협력하여 여름방학 독서캠프를 열었습니다. 첫째날 자전거도둑과 북경자전거, 둘째날 주머니속의 고래와 세 얼간이, 셋째날 쇠이유, 문턱이라는 이름의 기적과 라자르 선생님으로 책을 읽고 관련 영화를 보며 청소년들의 문제와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넷째날은 3일 동안 가장 인상적인 작품을 주제로 보드롱 꾸미기 작업을 해 보았어요. 이 기간은 복지실 선생님과 국어 담당 선생님이 동행해 주셨고, 참여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계란을 부쳐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가며 더운 여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날은 전주 한지박물관과 한옥마을 견학을 갔습니다. 한지도 만들어 보고, 최명희 문학관

도 가보고 경기전의 사고와 어진 박물관도 둘러보았으며, 전북대 도서관 견학과 뮤지컬 춘향도 관람하며 짝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1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은 단연 강풀만화입니다. 독서의 달에 강풀만화를 포함하여 좀머씨이야기, 수레바퀴아래서,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불편해도 괜찮아, 다이어트학교 중 1권을 읽고 쓴 독후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은 우리나라 책의 날입니다. 한글날을 겸해 국립국어원 지원 프로그램인 인터넷언어 관련 특강을 마련했구요, 또 마한도서관과 연계한 장서점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은 다독자시상도 하게 됩니다.

학교도서관에 처음 근무하게 된 초임의 눈으로 본 학교도서관은 15,000여 권의 장서로는 도서관의 힘을 느끼기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적어도 그 두 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자면 교실 3칸 규모의 도서관 면적도 턱없이 모자라겠지요. 또 모든 일을 혼자 다 해야 하는 사서의 일손을 도와줄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교육청에 상주하는 공동의 인력이 마련되어 각 학교에서 돌아가며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수서에서 느낀 점은 목록을 모두 외주로 해결하는 관계로 오분류가 엄청 많은데 그대로 복사된다는 점입니다. 이의 정비가 필요한데 사서가 없이 운영되는 학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학교는 목록작업 후 청구기호 라벨을 출력하기 전에 사서가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별 우수도서를 구입한다 해도 교과 담당교사의 수업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읽히지 않기에 교과협력수업이 필요하고 독서능력을 함양하고 고취시키기 위하여 또래독서모임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도서관 운영프로그램만 관리하였고 독서지도프로그램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 학교에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2015년 나는 어디에 있고, 우리학교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행운을 빌어봅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프로젝트수업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자료탐구 학습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해보자!

- 이덕주(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송곡여고는 여러 과목에서 도서관협력수업을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엔 사회시간의 수업을 소개해보려 한다. 먼저 사회 선생님과 사회시간에 사회문제에 대한 과제 찾기를 수업시간 중에 사서교사의 안내와 더불어 실시하기로 하고 그래도 학습목표 등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혼자 할 때는 상관없지만 2명 이상이 함께 하기에 문서정리는 꼭 필요하다.

학습목표

- 조별 프로젝트 과제 해결 과정을 실제 사회문제에 적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도서관 홈페이지, 학술 데이터베이스,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수업일정

- 1차시 : 프로젝트학습에 대한 교육 및 주제 소개, 선정
 - 2차시 : 자료 활용 기준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
 - 3차시 : 보고서 쓰는 법에 대한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
 - 4차시 : PPT 만드는 법에 대한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
 - 5차시 :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준비
 - 6차시 : 조별 발표(조별로 5분 기준) 및 평가
- 향후 지정된 일시까지 보고서 제출

평가 기준

- 프로젝트 주제에 적합한 자료수집 방법 (5점)
상: 5점 / 중: 4점 / 하: 3점
-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문제 해결 (10점)
상: 10점 / 중: 8점 / 하: 6점
- 팀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상호평가 (5점)
상: 5점 / 중: 4점 / 하: 3점

배점

1학기 사회과 수행평가 30점 중 20점 - 중간고사, 기말고사 70%, 수행평가 30% (이 중 프로젝트 과제 20%)

참고 사항

- 프로젝트 계획서 (첫 시간에 작성하여 제출)
-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 시 1차 제출, 향후 지정된 기일까지 최종 제출)
- 발표 시 PPT 활용할 것
- 태도점수 반영

이것 외에도 사실은 많은 자잘한 협의나 소통을 미리미리 해야 오해가 없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혼란이 없다. 여러 협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이런 수

업은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주제와 다양한 수준의 주제를 제시해보자. 학생들의 다양한 학력 흥미 수준을 감안하여 초등, 중학교 수준의 문제까지도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 단원별로 10개정도씩 약 50개의 주제 선정과 제시가 가능할까? 욕심이고 무리겠지만 시도해보자.
- 수업이 진행될 5개 학급에 학급당 10개의 주제 정도를 제시하려면 총 50개 주제
- 수행평가 배점 30점 (앞 단원 지리와 수업하는 교사들과의 협의 조정 필요)
- 범위에 대하여 고등학교 사회과 6~10단원 교과서를 검토하고 교과서마다 있는 수행평가, 탐구과제 예시들을 검토하면서 좀 더 재미있는 것은 없을까? 학생들의 정서에서 흥미를 유발시키면서도 사회에 대한 공부 가 되는 것은 뭐 없을까?를 고민해야한다.

이렇게해서 2012년 1학기 때 아래와 같은 문제를 내주고 사회과 도서관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우리 무시하지마-5년 후에 우리는 선거권을 갖는다.
- 학생인권조례 어디 갔어?
- 우리 소리를 들어줘.-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집단 또는 어떤 직업직군을 선정하여 그 집단 또는 직업의 요구사항을 만들어본다.
- 10년 후에 아래의 것들은 어떻게 변할까?-기후(4계절), 문화(도서관, 영화 등), 에너지(원자력발전, 전기), 주거문화(아파트, 펜션), 교육(교과서, 고등학교, 대학교) 교통(ktx, 자동차, 자전거) 남북관계 등.

2012년 2학기과 2013년에는 아래와 같은 주제로 사회과 도서관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 학생 인권 조례관련 우리들의 입장은?
-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본 우리집 명절증후군?
- 지금의 봉사활동, 과연 무엇을 위한 봉사인가?
-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심층 분석?
-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만약 나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 K-POP, 싸이 열풍이 세계화?
- 송곡의 개그 콘서트 코너 - 옹감한 형제들... 폭로할 것들?
- 휴대폰에 대한 나의 생각?
- 나는 지금 행복한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노후 대책?

2014년 4월에는 교과서도 바뀌고 아이들이 기대보다 재미있게 했던 이유들을 살피면서 과감히 주제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주기로 했다.

사회과 협력수업 1차 회의

- 협력수업 주제 : 사실과 가치 (사회 교과서 21p) 사회,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찾고, 양 쪽 가치에 대한 입장을 찬성-반대로 나누어 발표하는 형식의 수업
- 사회과 협력수업 주제 선정-학생들에게 모니터 후 최종 정하기

- 1) 고등학생의 '스킨십'
성적요구, 친밀감사회적 시선, 자제력, 공부에 집중하지 못함, 순결
 - 2) 연예인 특례 대학 입학.
대학홍보, 개인의 노력인정
일반인 피해, 의욕 저하, 공정성의 문제
 - 3) 연예인 병역 특례 / 연예병사
군홍보, 사기진작 / 공평성, 기강해이
 - 4) 도시개발
뉴타운, 지역경제, 리빌딩
원주민문제, 환경문제
(두 섬 이야기, 난 곰인 채로 살고 싶은데)
- 수업 진행 과정 계획
0차시 : 조 편성(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번호 순서대로) → 각 반 당 6조 씩
1차시 : 주제 선정(8개 가량의 주제와 관련 자료를 제시한 후 학생들이 골라 주제를 선정)
2차시 : 자료 찾는 법, PPT작성법 교육(카인즈 등), 학생들 조별로 자료 조사
3차시 : 자료 정리, PPT작성, 발표대본 작성
4차시 : 조 별 발표 및 평가
 - * 평가기준 선정이 중요
 - * 교육과정을 확인
 - * 주제 별로 자료를 제시-pass finder

사회과 협력수업 2차 회의

- 협력수업 교과서 주제 : 사실과 가치
- 수업의 형식 : 찬성/반대를 나누어 토론하는 형식
- 수업 배정 : 1~1부터 1~10까지 총 10반 사회과 협력 수업 실시. 한 반 당 6조씩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함.
- 회의의 흐름
각 반에 8개 씩 수업 주제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골라 발표하기로 함. 자료를 찾는 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이에 대한 출처와 링크를 함께 제공할 것임(pass-finder방식)
→ 8개의 수업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찾고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 6개의 수업 주제로 줄임
→ 6개 수업 주제를 결정한 후, 사회과 선생님께서 찾은 인터넷 영상 자료를 함께 봄
→ 각 사람이 맡은 주제별로 해당 주제에 대한 자료(단행본, 신문기사, 논문, 인터넷 사이트 등)를 찾아 ppt파일로 정리할 것을 약속
- 수업 세부 주제
고등학생의 '스킨십' / 연예인 특례 대학 입학 / 선행학습 / 여드름과 화장품 / 스마트폰(카카오톡) / 성형수술

아이들에게 주제 선정권을 주었더니 아이들이 고른 위 6개의 주제는 지도교사들은 일부 당황스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너무나너무 재미있어했다. 아이들 중심 수업은 주제 선정부터 아이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사회과 수업을 통해 신문기사 자료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사서교사 탐색 지원)

책모임 여사서동락이 권하는 쉽게 만나는 역사이야기

與四書同樂 2013년부터 우리의 역사를 통해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오늘의 우리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를 안내하고자 하는 뜻에서 모인 15명의 학교도서관사서들이다. 20~40대 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서들이 배움의 뜨거운 열정으로 조금씩 열리는 역사인식과 토론을 접목시켜 그 속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찾아내고자 한다.



정조와 함께 가는 8일간의 화성행차

황은주 글 / 강윤정 그림 / 그린북

1997년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수원 화성. 조선의 22대 왕 정조대왕께서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잘 나타난 책이다. 이 책은 1795년 2월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맞이하여 수원화성으로 8일간의 능행차하는 과정을 정조 자신의 일기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내용마다 왕실의 화려한 궁중 문화와 군사훈련을 통해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조선시대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행차모습을 일러스트와 사진자료로 구성하여 8일간의 여정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화성행차이야기를 일기형식으로 구성하므로 친근한 왕의 모습이 느껴지고 백성을 사랑한 정조대왕의 꿈이 담겨있는 수원화성을 꼭 만나고 싶어지는 책이다.



한 눈에 반한 미술관 시리즈

장세현 글 / 사계절

‘르네상스에서 20세기 미술까지, 까지 호랑이에서 책거리까지, 풍속화에서 사군자까지’란 주제로 되어 있으며, 화가, 미술 작품, 미술사에 대한 관련 정보, 일화 등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다. 익숙하지 않은 명화나 우리나라 여러 장르의 민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알지 못했던 명화 이야기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명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원본 그대로를 실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술관에서 명화를 보는 것처럼 예술을 가깝게 느낄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명화를 수록하고 있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역사의 힘이 된 9가지 책 이야기

배수원 글 / 광성화 그림 / 어린이 작가정신

기록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대의 상황이나 생활 모습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는 지나간 과거이고 기록의 산물이다. 이 책은 역사적 기록을 담은 여러 책들 중, 제목 그대로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후세에도 큰 영향을 준 9가지의 책이야기들을 뽑아 엮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시작하여 최초의 한문 소설, 성문법, 일기, 기행문까지 들어있다. 읽는 동안, 역사적 바탕으로 쓰인 재미난 동화를 통해 그 글을 쓴 작가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되고, 자세히 살펴보기 코너를 통해 보다 더 깊이 있는 역사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역사』 시리즈의 열다섯 번째 책인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 역사가 한 뼘 더 친근해진 것 같은 기분은 덤이다.



아프리카 국경버스

김란주 글 / 허구 그림 / 한겨레아이들

어릴 적 열기구를 타고 싶었던 카이아저씨는 아프리카 국경을 넘나드는 버스를 운전한다. 아프리카하면 드넓은 초원 세랑게티가 떠오르고 끝없이 모래가 펼쳐지는 사하라 사막이 생각나지만, 그것들과 함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 아프리카다. 카이아저씨는 아프리카 국경버스를 몰면서 아프리카의 전통문화, 역사, 현대문화, 산업, 그리고 아프리카의 최대의 난제 가난과 질병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하라 남쪽지역에는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3천6백만 명이 넘고 2010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5만5천여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했는데, 그중 아프리카 사망자가 91%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무수한 지하자원인 금과 은, 다이아몬드, 원유와 가스가 매장된 곳이 아프리카이기도 하다. 문득 한 여름 피약벌에 드넓은 카카오농장에서 카카오열매를 따는 아이들이 가엽게 여겨진다면, 달콤한 초콜릿을 구매할 때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창덕궁 나들이

김이경 글 / 김수자 그림 / 파란자전거

사서 20명이 함께 찾은 창덕궁! 창덕궁을 다녀오고 나서 이 궁궐에 더 관심이 생겨 보게 된 책이다. 조선의 5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중 창덕궁은 가장 오랫동안(270년) 임금들이 거처 했던 궁궐이자 궁궐 중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창덕궁 나들이』 첫 페이지를 펼치면 창덕궁으로 들어가는 정문인 돈화문이 펼쳐진다. 선명한 색상에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려진 돈화문은 실체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다. 시처럼 간결한 글과 궁궐 곳곳의 건물들과 <정조의 화성행차도>를 비롯한 각종 의궤도를 활용하여 그린 대궐의 행사 그림들을 보노라면 설명을 들으며 창덕궁을 직접 거닐고 있는 느낌이 든다. 조선의 임금님들이 가장 사랑한 궁궐 창덕궁, 애련지의 그윽한 풍경에 마음이 머무는 책이다.



한눈에 펼쳐보는 한국사 연표 그림책

정연 글 / 이혁 그림 / 진선 출판사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 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역사 공부를 ‘어떤 책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그때 <한눈에 펼쳐보는 한국사 연표 그림책>을 자신 있게 권한다. 두꺼운 책에 거부 반응이 있는 아이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의 주요 사건을 시대 흐름에 따라 재미있는 그림과 연표로 정리했기

때문에 아직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왕실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

신병주, 이혜숙 글 / 책과함께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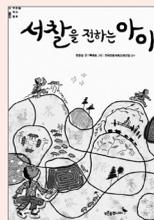
왕실도서관 규장각은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가 창덕궁의 경치가 아름답고 한적한 곳에 지은 건물로서 조선왕조 실록은 물론 어필, 의궤, 지도 등 조선의 발자취를 가득 담고 있는 보물창고이다. 이러한 규장각에 소장된 수많은 자료들을 사진과 함께 말하듯이 친절하게 설명함으로써 초등생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선의 흥미진진한 역사를 들으며 규장각에 소장된 진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보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해안이 느껴진다.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대에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쓰고 그려서 만든 모든 기록물들은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야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규장각에 있는 조선의 보물들과 연계하여 서울 곳곳에 있는 궁궐을 둘러본다면 어느새 우리는 역사의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비단길로 간다

이현 글 / 백대승 그림 / 푸른숲주니어

제목은 보면 눈치챌 수 있듯이 발해시대를 배경으로 한 상인의 이야기이다. 금씨 상단의 대상주 금기옥은 교역하고 돌아오는 중에 태풍을 만나서 행적이 묘연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젓하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금기옥의 딸 홍라의 이야기이다. 어머니와 함께 배에 있던 상인들도 실종되고, 교역품들도 바닷 속에 떠내려가게 되며, 가독부 만아들의 혼인잔치에 비단 500필까지... 빗더미에 올라앉아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소고드 은화를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된다. 함께 떠나게 된 친사, 월보, 비명자 그리고 주신타. 사연 있는 이들과의 모험, 자존심 세고 당찬 홍라가 금씨 상단을 지킬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면서도 그 속에서 발해 당시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책이다.



서찰을 전하는 아이

한윤섭 글 / 백대승 그림 / 푸른숲주니어

여기 한 아이가 있다. 아버지와 함께 전라도로 떠나던 이 아이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아버지 대신 서찰을 전하기로 결심한다. “아주 중요한 서찰이다. 한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는 아버지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전해야 하는 서찰엔 목적지도 받을 사람도 적혀 있지 않고, 오로지 읽지도 못하는 10개의 한자뿐이다. 하지만 한자를 풀이하며 목적지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간다. 이 책은 절망 속에 서있던 한 아이의 성

장소설이기도하지만 서찰을 전하는 아이의 여정을 따르다 보면 동학 농민 운동이 더 이상 교과서 속의 한 줄의 역사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초정리 편지

배유안 글 / 홍선주 그림 /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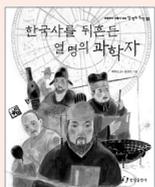
‘역사책은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책도 있다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후 눈병 때문에 충북 청원군 초정 약수터로 요양을 가는데, 장운은 나무하러 갔다가 그 초정에 온 할아버지에게 한글을 배운다. 장운은 할아버지에게 배운 한글을 누나에게 가르쳐주어 남의 집 종살이를 가게 된 누나와 편지를 쓰게 되고, 석공이 되기 위해 배운 것을 한글로 적어서 익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준다. 쉽고 편리한 글자를 만들어 놓고도 신하들의 반대에 몹시 근심하는 세종대왕은 석공이 되어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장운의 이야기를 듣고 한글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된다. 한글이 반포되고 백성들에게 한글이 보급되는 과정을 석공의 꿈을 이뤄가는 장운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조선시대 초상화에 숨은 비밀 찾기

최석조 글 / 책과함께어린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순신 장군, 집현전 학사 신숙주 등의 초상화는 진짜 얼굴일까? 초상화의 궁금증과 우리의 옛 그림에 대해 알 수 있다. 옛 초상화는 실제인물과 똑같이 그렸으며 터럭 한올은 물론 사마귀, 점, 곰보 자국, 검버섯까지 그렸으며, 또한 ‘전신사조’ 인물의 정신, 마음까지 담아내야만 했다. 조선시대의 기념 앨범과 같이 펼쳐지는 초상화의 방은 초상화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왜 그렸는지, 초상화에 숨은 이야기를 이야기형식으로 잘 나타나있다. 그 중 채제공의 초상화는 손에 부채를 들고 부채 끝에는 장식품 향낭까지 달려있다. 이것은 정조대왕님이 하사한 물건으로 조선시대 초상화에는 손을 그리지 않았지만 손을 내 놓고 그린 점이 특이하며, 눈동자가 한 쪽 몰린 사팔뜨기라는 점도 초상화를 통해 알게 된다.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옛 선조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적인 지식을 알아보고, 초상화 주인공의 정신과 마음을 느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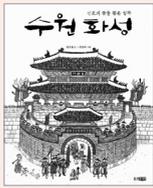


한국사를 뒤흔든 열 명의 과학자

류화선 글 / 문성연 그림 / 한림출판사

이 책은 허준, 장영실, 최무선처럼 유명한 과학자들과 홍정하, 이순지, 신숙 등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좋았다. 각 인물이 태어난 배경과 업적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고, 훌륭한 일을 하던 시대의 배경까지 설명 되어 있어서 역사공부까지 되는 책이다. 기술을 천시하던 시대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거움을 얻고,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모습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가능한 업적이었다.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은 우리 과학의 앞선 기

술과 뛰어난 우리 과학자들에게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는 지식과 과학의 시대가 되었다. 자공심을 갖고 배움을 열심히 하여 우리도 세계를 뒤흔드는 과학자가 되어 보자.



정조의 꿈을 품은 성곽 수원화성

김진섭 글 / 김병하 그림 / 웅진주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에 관한 책들은 많다. 하지만 주로 많은 글과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학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정조의 경제, 농업, 군사도시의 꿈을 품고 설계한 수원화성을 병풍 형식의 입체적인 그림책으로 기획되어 즐거운 놀이로서 책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학년들에게 제격이다. 책을 펼쳐 동그랗게 만들면 성곽이 연결된다. 앞면은 화성 안에서 바라본 모습이 뒷면을 펼치면 화성 밖에서 바라본 모습이 이어진다. 화성을 찾은 정조의 움직임에 따라가면서 화성의 각 시설물과 이름과 용도 그리고 정조의 애민사상과 효심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글 / 김동성 그림 / 문학동네

서학이 조선에 들어오고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 주인공 장이는 필사를 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이의 아버지는 천주학책을 필사한 뒤 천주학생이라는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 가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기에 이른다. 그렇게 고아가 된 장이를 거두어 준 책방주인 밑에서 심부름과 필사를 하며 지내는 장이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책과 노니는 집>은, 조선 후기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을 긴장감 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장이의 눈으로 풀어낸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서민들의 생활상 등 지식을 통해서 접하던 역사의 내용을 이야기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겨레의 큰 사람 김구

신경림 글 / 정병래 그림 / 창비

‘내가 만난 역사 인물 이야기’ <김구> 편. 이 책은 「민요기행 1·2」, 「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1·2」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인 신경림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물이야기로 김구선생이 활동한 사건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알 수 있게 한 책이다. 황해도 해주 백운방 텃밭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김구는 을사조약 무효투쟁을 벌이고 1931년에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윤봉길에게 홍커우 공원폭탄 투척을 지시한다.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통일조국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그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1949년 6월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고 국민의 통곡 속에 효창 공원에 묻혔다. 일제 시대의 대한 독립을 위해 싸운 김구 선생의 항거는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며 김구의 애국심과 독립 투쟁을 통해 우리 겨레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독서문화캠페인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권장도서 360선 책읽기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가 아이들의 책읽기를 지원합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작은 선물!

초등학교 학년별로 권장도서 60종과 독후활동지가 담긴 “독서공책”을 각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받아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 : 1차 -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상 : 대한국민의 모든 초등학교 / 공공도서관/도서관 등
신청방법 :

- 1) 인터파크 도서에서 신청 (초등학교용)
▶ 인터파크 도서 검색창에서 “초등 360 독서공책”을 검색 후 이벤트 페이지 안에서 신청서 작성
- 2)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카페에서 신청 (독서단체 / 어린이도서관용)
▶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cafe.daum.net/book4all) 접속 후 “초등 360 독서공책 신청방”에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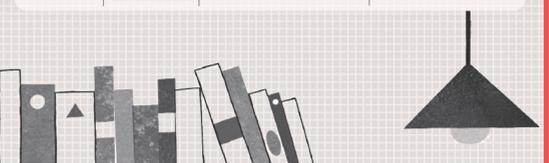
발송일 : 9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문의 :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초등 360 독서공책 신청방”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는?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는 한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좋은 책을 내는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출판사와 출판인의 모임입니다. 1995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8개 아동출판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발전하는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더불어 어린이 출판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권장도서 360선을 응원하는 사람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책 읽어주는 시간에 생긴 일

이유정(서울 은로초등학교 사서)

매주 수요일은 내가 책을 읽어주는 날이다. 그런데 그 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다. 종종걸음으로 서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고개 돌려 보니, 아이들이 책상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그림책 한 권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다.

등장인물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는데,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주 밝고 높은 목소리로 첫 줄을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다 읽고 나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최선을 다해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 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하는 순서였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여자 아니고 남잔데요?” 한 아이가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도 몰랐겠지~” 그러자 여러 아이들이 함께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날 나는 더 부끄러워 열심히, 아주 열심히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로 책을 읽었다.

하루는…….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눈이 커다랗고, 바가지 머리를 한 1학년 여학생이 손 안에서 동전을 짹짹 거렸다. 나는 왜인지 그 동전소리에 신경이 쓰였지만, 모두들 책읽기에 열중하느라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렸다.

책읽어주는 시간이 끝났는데, 갑자기! 바가지 머리 여학생이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엉엉엉 우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도서관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나를 포함해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잃어버린 백 원짜리 동전 네 개를 찾아 도서관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녔다.

그렇지만 정말 조금 전까지 짹짹 소리를 내던 동전들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고학년 언니는 울고 있는 1학년 여학생에게 다시 한 번 주머니를 뒤져 보라고 달래고, 바가지 머리 1학년은 제 주머니들을 죄다 뒤집어 보이며 눈물과 콧물이 범벅인 얼굴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결국 내가 지갑에서 오백 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1학년 여학생 손에 쥐어주며 다음부터는 자기 물건을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하지만 1학년

여학생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빠가 사백 원을 주면서 이백 원은 사탕을 사먹고, 이백 원은 무슨 학용품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오백 원짜리 동전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학생이 갖고 있던 백 원짜리와 내 오백 원짜리를 맞바꾼 다음, 울고 있는 아이에게 사백 원을 쥐어주었다.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나니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난 후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끌고 가장 외진 구석으로 가니 이게 웬 걸? 거기에 400원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나와 모든 아이들이 찾을 때는 없던 동전이, 누군가의 얌전한 마음이 거기 놓여 있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그림책 읽기 놀이로 행복을 키워요

손 영(서울상수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선생님이 읽어 주신 책이 도서관에 있어서 빌려왔어요. 아침에 읽어 준 그림책을 어느새 도서관에 가서 빌려온 어린이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 그림책을 좋아해서 책 향기가 물씬 풍기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과 그림책 읽기로 소통하는 나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이다.

평소 그림책을 좋아하여 학급 어린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부터 시작된 그림책 읽기는 아침 시간, 쉬는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교과 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서 말꽃과 글꽃을 피우고 감성을 키우게 하였다.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는 스스로 읽기, 선생님과 함께 읽기, 친구와 함께 읽기 활동을 통해 그림책과 만났다. 스스로 읽기와 더불어 학급 어린이들이 함께 읽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책 읽기를 전개하였는데 이야기 마당에 둘러앉아 선생님이나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그림책 읽기를 어린이들은 좋아했다. 그림책 읽기를 마친 후 같은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그림책 읽기를 놀이와 접목하여 다채롭게 전개하였다. 그림책 속에 담긴 기쁨, 슬픔 등 다양한 정서를 모두 친구들과 의논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후 역할놀이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역할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경험 활동을 극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면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다.

진로교육 활동으로 ‘너는 어떤 씨앗이니?’ 그림책을 읽고 꿈 표현하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기의 단점, 장점, 희망 등을 생각하여 자기를 소개하고, 장래 꿈과 꿈을 향한 노력을 열매 모양의 카드에 기록하여 소망나무에 매달았다. 또 미래의 자화상을 직업과 연계하여 교실에 전시하고 꿈자랑 발표회를 하였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살리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 ‘집쟁이 빌리’ 그림책 읽기 놀이를 전개하였다. 자기의 걱정거리를 열음 조각상 몸짓 놀이로 표현하고 친구의 걱정거리를 모둠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해보게 한 후, 각자의 걱정거리와 해결방안을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책 속에 등장한 걱정인형을 각자 나름대로 창작하여 색깔 점토로 만들어서 전시했다. 걱정거리 모음란은 어린이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담 기초 자료가 되었다.

마음을 키우는 책 만들기 활동으로 그림책 읽기를 통하여 얻은 다양한 감성적 자극을 어린이들이 또 다른 책의 형태로 표현하는 통합적인 배움의 장을 펼쳤다. 기본형, 팝업북, 입체북, 모뎀북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여 교실에 상설 전시함으로써 서로가 독자가 되어 상호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어린이들이 만든 책에 친구와 부모님이 간단하게 소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교과 시간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림책을 소개하고 함께 읽기 활동으로 배움에 활력과 기쁨을 불어넣었다. ‘가게놀이’를 학습하기 전에 ‘무지개 물고기’ 그림책을 읽고 장면에서 중심이 되는 감정언어 살피기, 역할놀이 하기, 편지쓰기, 다짐카드와 도움 기록표 만들기, 콜라주로 꾸미기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눔 활동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나눔을 받게 되는 사람 모두에게 성장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었다. 또 교실 서가에 나눔 주제 책(개구리네 한 숯밥, 나눔 대장, 내 귀는 짹짹이, 단추수프, 영이의 비닐 우산, 으뎀 해엄이, 파랑이와 노랑이)을 별도 전시하여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도서관 활용 수업이 있던 어느 날, 교실에서 곤충 주제 학습을 하면서 관련 도서를 읽어주었더니 우리 반 어린이들이 평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던 자연과학 도서 코너에 자발적으로 우르르 몰려가 호기심과 설렘으로 눈을 반짝이며 책을 고르는 모습에 웃음이 피그시 머금어졌다. 학교 도서관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그래, 재미있게 읽으렴. 다음 시간에는 체육관에서 곤충처럼 움직여 보자.’

그냥 읽기만 해도 좋은 그림책, 놀이를 곁들이면 더 좋은 그림책의 세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한 세상을 접하고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충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겠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우리 동네 문화놀이터!

안용덕(부천 계남초등학교 교사)

계남초등학교 도서관은 저녁 8시까지 환한 불빛으로 동네 사람들 마실 오기를 기다린다. 독서교육을 강조하신 김형숙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책 읽는 문화도시 부천'과 함께 하는 독서 문화운동의 하나다. 퇴근 길 아빠랑 엄마랑, 일찍 출근하는 맞벌이 부모를 둔 학교 일찍 온 아이들도, 도서관이 아침, 저녁으로 환하게 반갑게 맞아준다.

월요일 6시 30분엔 아이랑 엄마랑 열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독서동아리 4기 팀들의 마실 오는 발걸음이 신난다. 화요일은 5~6학년들로 구성된 사제동행 독서 토론 수업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반짝거린다. 6시부터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많은 3기 팀들이 마법의 웃음단추를 달고서 모이기 시작한다. '채인선의 아름다운 가치사전'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실천한 가치 주제를 바탕으로 마주이야기가 펼쳐진다. 책 주제 토론을 하다가 집단 육아 상담과 교육 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목요일엔 야간 도서관 문화놀이터 마실 공간 중 벽걸이 분수와 가까운 그림 책방에서는 가장 먼저 도서관 문화운동에 동참한 가족독서동아리 1기 엄마들의 마주이야기가 쏟아진다. 주로 저학년들이 많아 토론하는 엄마 옆에 누워 그림책을 보기도 하고 도서관 곳곳에 있는 책들을 골라 스스로 읽기도 한다.

우리학교 도서관에는 책을 읽다 무언가 끄적거리고 싶고 남기고 싶은 책 속 지혜를 내 것으로 쏟아내고 싶을 때 찾는 곳도 있다. 책놀이, 글놀이, 말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체험을 하는 곳이다. 10가지가 넘는 것 중 관심 있는 응모지를 골라 쓰고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영역별로 한 달에 한번 사고력과 창의력이 톡톡 튀는 글로 뽑히면 문화상품권이나 동화책을 받을 수 있는 쓸쓸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책 속 명언 찾기', '책 속 가치 사전', '내가 만든 독서명언', '독서다행시', '독서만화', '시 맛글', '지상시조백일

장', '그림책 패러디'…….

도서관을 자주 드나드는 학부모를 시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가족독서동아리 활동이 2년째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으로 긍정심리학을 밑바탕으로 깔고 시작한 계남 가족독서동아리 활동은 가치교육, 의식성장 교육과 함께 한다. 뇌교육을 활용한 마법의 웃음단추 활용과 '실수 오케이' 문화를 통해 감정 정화 훈련을 함께 해나간다.

아이의 독서성장을 목적으로 시작한 독서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책을 통해, 마주이야기 공책을 쓰면서 엄마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날은 울음보가 터지기도 한다. 눈맞춤으로 가슴으로 자기 이야기를 이제야 진짜 들어준 엄마 덕분에 쌓이고 고인 아이의 묵은 억울한 감정을 정화시키는 눈물은 모두에게 정하게 다가오는 성장통의 선물이 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토론하며 노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지는 아이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꿈틀대는 내면의 성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 엄마들. 당장에 나타나는 성적에, 상장에 안달하지 않고 도서관 문화를 즐기는 기쁨을 알게 해 주고, 스스로 홀로설 수 있도록 아이들을 믿어주는 힘은 가족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된 귀한 선물이기도 하다.

2학기엔 '아빠와 함께하는 그림책 여행책'을 읽고 온 가족이 그림책을 읽고 마주이야기를 펼쳐 가는 중이다. 책이 다 읽어질 즈음 그림책 읽는 가족들이 많아지도록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올해 시작한 4기 팀이 스스로 홀로서기가 될 즈음엔 5기 가족 독서동아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아이와 함께, 때론 각자 도서관문화를 스스로 즐기며 도서관을 자기주도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업무를 맡은 즐거움은 교사인 내가 받는 선물이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교사

내가 좋아하는 것

이민경(충북 진천삼수초등학교 사서교사)

지금은 e-mail로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낯선 일이 되어버렸지만, 1998년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까지도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일상이야기들을 편지로 주고받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학교에는 '해의 펜팔부'라는 이름의 동아리도 있었다. 이 동아리는 해의 친구와의 펜팔을 원하는 전 세계 학생들을 서로 주선해 주었는데 호기심 반으로 나도 주소 하나를 받게 되었다. 동갑이지만 나보다 한참은, 아주 한참은 언니 같아 보였던 친구와 나는 꽤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 그 친구는 나를 이탈리아로 초대하였다. 물론 그때에는 '내가 어떻게 이탈리아를?' 하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했고 바쁜 고3 생활과 함께 서서히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나고 전혀 불가능하리라 생각되었던 일들이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천안문 광장에 서서 느꼈던 감격을 시작으로 나는 기회가 닿으면 배낭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방학 중에 다니는 여행으로는 갈급하였던 깊이를 1년 휴학 후 배낭여행으로, 임용 후에는 KOICA 해외봉사단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채워나갔다.

봉사단원으로 지낸 2년도 지나고, 복직한 학교는 다문화이해교육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었다. 지금도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독서캠프를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때 내가 계획했던 프로그램 역시 다문화였다. 학교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내가 참으로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한다면 나도 아이들도 즐거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라틴아메리카'를 테마로 사전에는 학교도서관에서 중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의 문화와 지리에 대한 책을 함께 읽고, 다음날 오전에는 중남미문화원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KOICA지구촌체험관을 가서 남미3국(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Gran Amigo'전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그날 아이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부모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로 받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시작한 독서캠프를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봐 주었고 이후에는 연구학교 예산으로 다문화독서캠프를 방학 때마다 맹렬히 진행할 수 있었다.

지금은 새로운 학교에 와 있다. 1학기 때 운동장에서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더러운 인도인~"이라며 친구를 놀리는 아이를 보며 갈 길이 참, 멀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기에 행복하다.

학도넷 소식

2014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4년 6월 15일 소식지 여름호 발행(총권 32호)
- 2014년 6월 28일 만남과 바람 “서촌 기행”
- 2014년 8월 12~14일 여름사서연수 “그림책에 관한 모든 것”

신입회원 (2014년 6월~2014년 8월)

정회원 : 김심환 전수정 윤지현 신영순 변영임 김효숙 홍선희 이숙현 안용덕 박정미
 준회원 : 이범상 정내현
 웹회원 : 김은나 정원선 박희경 김은희 손희진

회비 및 후원내역 (2013년 6월~2014년 2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신은미 주상태 신형란 김정윤 김은영 선보배 이수연 구미숙 허지은 길미숙 변영이 백연주 백경숙 송숙영 정수연 강영미 유서연 송해영 신정화 정혜선 윤남미 허지연 송경영 임민욱 강복숙 박미영 이현애 김영신 정영화 성주영 김대경 유정원 박준섭 차진미 김하나 이유정 이찬미 김선영 채재현 권도경 최선옥 이현 김경숙(보령) 김효숙 김심환
- 매월 1만원 : 정수현 정지영 김진희 김중성 조의래 조은영 조선희 김경숙 박영옥 김순홍 이경자 문예원글로피아 백화현 이규향 허경림 오희애 이문숙 정진수 김옥위 김신희 권향미 박정해 강지영 박지연 류주형 김숙경 정영희 김승주 조길량 김광재 조선희 황봉희 박샘
- 매월 3만원 : 윤성옥(해피북 책모임)
- 연회비 : 안영숙(5만) 장정윤(5만) 안용덕(5만) 이숙현(5만) 유영숙(5만) 변영임(6만)

준회원 회비

- 매월 : 장한솔(2천) 장버리(3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손은상(2천) 김민형(2천) 송권형(1천) 김승요(2천) 김승현(2천) 강형인(3천) 이재희(2천) 최유미(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인세후원 : 백화현 '도란도란 책모임' (15만원)

광고후원 : 사계절(50만)

여름사서연수 책 후원 : 비룡소출판사-안녕, 여긴 천문대야!(52권), 인디언의 진짜 친구(52권) / 보리출판사-개똥이네 놀이터 8호(50권), 개똥이네 집 8월호(50권)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학교로 간 그림책(상상의 힘) / 아빠는 방랑 요리사(청개구리) / 이방인을 보았다(북멘토) / 열큰 썸의 비밀 저금통(키다리) / 한글 논어,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판미동) / 나는 감정이 있는 존재인데, 엄마 투자가(민음인) / 꿈꾸는 카멜레온(다림) / 아들이 너는 이런 책을 읽으려(추수밭) / 내 맘대로 학교(한솔수북) / 꽃을 좋아하는 공룡이 있었을까?(찰리북) /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시루) / 그 꿈들(낮은산) / 숫자로 보는 세계화 교과서(현실문화) / 펄펄 뛰는 피엣(도토리숲) / 공룡이 내친 숨을 우리가 마셔요(소금창고) / 혼자서 끝내는 논술공부(이지북스) / 동학농민군 대장, 녹두장군(비룡소) / 빨간 기와집, 집 하나 그려 주세요(꿈고) / 성과 사랑 365(학교도서관저널)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 도서관이야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 초등학교 권장도서 360선 독서공책 50권(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 학교도서관저널 9월호(학교도서관저널)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학도넷 만남과 바람 ‘서촌기행’ 했습니다.

- **이꿈이** : 김정숙 선생님(전동중학교 국어교사)
- **때** :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 **곳** : 이상 집터, 운동주 하숙집터, 박노수 미술관, 수성동 계곡, 운동주 시인의 언덕
- **읽어보기** : 윤영전(잘못 떨어진 먹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사랑) 조현설 글/휴머니스트
 서촌방향(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 최고古의 동네) 설재우 글/이덴슬리벨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했습니다.

- **주제** : 그림책에 관한 모든 것
- **강사** : 이루리(동화작가, 그림책 평론가, 북극곰 편집장) 이은파(전 한겨레그림책학교 강사, 고래벡속(이지북스) 편집장) 김소희(동화작가,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도서관 관장) 오승주(책 놀이 저자) 이경국(그림책 작가, 한겨레그림책학교 강사)
- **때** : 2014년 8월 12일(화)~14일(목) (3일간, 10:00~17:00)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2호선 강남역)
- **공동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주관**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도넷 종일연수 합니다.

- **연수명** : 박물관 나들이 기획하기
- **내용**

시간	내용
10~12시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제기동)
12~2시	점심, 이동
2~4시	숫대 박물관(대학로)
4~5시	정리- 박물관 어떻게 볼까?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진행** : 박물관 이야기
- **일정** : 2014년 11월 2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학도넷 종일연수 합니다.

저작권의 면책규정과 학교도서관 서비스 연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연수를 엽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7가지의 저작재산권(즉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 **연수명** : 학교도서관과 저작권
- **내용**

시간	내용
10~12시	도서관과 저작권 (정경희 교수님 /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12~1시	점심
1~3시	학교도서관 사서와 저작권 (백연주 선생님 / 학도넷 정회원)
3~5시	저작권과 자료활용 워크숍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www.hakdo.net)
- **때** : 2014년 11월 29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학도넷 후원의 밤

-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 장소와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2014년 제2차 독서문화포럼을 개최합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아래와 같이 “2014년 제2차 독서문화포럼”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상시학습 4시간 인정)

- **일시** : 2014. 9. 22(월) 13:30~17:4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4층)
- **주제** : 「한국 도서관 문화와 독서운동 100년사」
- **대상** : 어린이·청소년서비스 담당자, 아동문학가, 출판관계자, 연구자, 독서관련 단체 등
- **주요내용**
 한국 도서관 운동 100년의 흐름과 전망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동의 역사와 발전 방향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독서프로그램과 제언
 세계의 도서관 산책

시간	내용
13:30~14:00	30분 참석자 등록
14:00~14:10	10분 포럼안내 및 개회 (여유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
14:10~14:50	40분 한국 도서관 운동 100년의 흐름과 전망 (김중성 계명대 교수)
14:50~15:30	40분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동의 역사와 발전방향(김경숙 학도넷 사무처장)
15:30~15:40	10분 휴식
15:40~16:20	40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과 제언(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16:20~17:00	40분 세계의 도서관 산책 : 건축가의 눈으로 바라보기(강예린 도서관산책자 저자)
17:00~17:30	30분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17:30~17:40	10분 폐회 및 정리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독서문화캠페인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와 함께 하는 초등학교 권장도서 360선 책읽기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가 아이들의 책읽기를 지원합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 초등학교 학년별로 권장도서 60종과 독후활동지가 담긴 “독서공책”을 각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받아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1차 /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 **대상** :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교/공공도서관/공부방 등
- **신청방법**
 - 1) 인터넷 도서에서 신청(초등학교용) 인터넷 도서 검색창에서 “초등 360 독서공책”을 검색 후 이벤트 페이지 내에서 신청
 - 2)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카페에서 신청(독서단체/어린이도서관용)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접속후 “초등 360 독서공책 신청방”에서 신청
- **발송일** : 9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문의** :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초등 360 독서공책 신청방”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425301-01-301236 김경숙(학도넷)